

IS테러를 중심으로 한 국제테러의 변화양상 분석

An analysis of Changes of International Terrorisms of IS

Seiyouen Oh^{a,*}

^a Department of Public Police Administration, Senyung University, 65, Senyung-ro, Jecheon, Chungbuk 390-711, Republic of Korea

ABSTRACT

This study analyzes the changes of international terrorisms which are caused by IS through literature investigation, statistics and case analysis, and gives an understanding about recent trend of the terrorisms and aggressive method. Moreover, this study is for presenting a basic standard about an effective counterplan of the terrorisms.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of all, there is a change of terrorism that homegrown terrorism grows into wolf-pack terrorism.

Second, the terrorists show psychological terror by expanding their targets and using brutal and indiscriminate terrorism attacks .

Third, the terrorists use networks of internet and SNS as a resource and as a tool for publicity activities of their groups.

Forth, the terrorists have form of global organization through ties of other terrorists like middle-east or Africa.

KEYWORDS

IS,
Change of International Terrorism,
Wolf-Pack Terrorism,
Homegrown Terrorism,
Ties of Terrorists.

본 연구는 문헌조사와 통계 및 사례분석 등을 통하여 IS를 중심으로 발생되어진 국제테러에 대한 변화양상을 분석하고, 최근의 테러 동향과 공격방법들에 대하여 이해하며, 이를 통한 테러의 효과적인 대응방안을 마련 할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연구를 수행하였다. 따라서 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 번째, 테러형태의 변화로써 자생테러를 중심으로 결합한 울프팩 테러로의 진화양상을 보이고 있다.

두 번째, 테러공격 대상의 확대와 잔인하고 무차별적인 테러공격을 통한 심리적 공포를 조성하는 성향을 띠고 있다.

세 번째, 사이버 공간에서 인터넷과 SNS의 네트워크를 조직의 홍보와 선전의 전략적 도구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넷째, 중동 뿐 아니라 아프리카 등의 다른 테러조직과의 연대를 통한 글로벌 테러조직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

IS,
국제테러 변화,
울프팩 테러,
자생테러,
테러조직의 연대

© 2015 Korea Society of Disaster Information All rights reserved

* Corresponding author. Tel. 82-43-649-1687. Fax. 82-43-649-1739.
Email: s092724@naver.com

ARTICLE HISTORY

Received Aug. 25. 2015
Revised Aug. 28. 2015
Accepted Sep. 23. 2015

1. 서론

지난해 10월 한 이슬람 개종자에 의해 자행된 캐나다 국회의사당 총기 테러와 12월 15일 오전 출근시간대 이란 난민 출신 호주인이 자행한 호주 시드니 도심 인질극 그리고 파리에서 발생한 샤를리 에브도 출판사 테러와 잇단 인질극에 이어 최근에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이라크 고대유적 하트라를 파괴하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IS는 국제적으로 심각한 테러행위를 자행하고 있어 국제사회의 거대한 위협이 되고 있다. 또한 IS(이슬람국가)에 충성 맹세 혹은 지지를 표명한 무장단체가 보코 하람, 안사르 베이트 알마크디스(ABM)등을 비롯하여 21개 이슬람 무장단체가 충성을 맹세했으며, 공식적으로 충성서약을 하지 않았지만 IS를 지지하고 있는 무장단체도 10곳이나 되고 있어 전 세계 31개의 무장단체가 IS와 연계 되어진 것으로 보이며 IS무장단체에 가담한 외국인 대원도 100개국 3만 명에 달한다.¹⁾

이러한 사건사례에서 살펴보면 IS단체와 국제적 테러단체의 연합 그리고 세계 각국 청소년들의 자발적 IS에 참여행동은 IS의 테러행위가 과거와는 달리 어느 한 국가에서만 집중적으로 발생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를 대상으로 특히 한국 내에서도 IS단체에 의한 테러행위가 발생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따라서 IS에 의한 테러행위는 더 이상 한 국가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 국가 모두가 심각하게 고려해야 할 문제 일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IS에 의한 국제적인 사건사례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최근 IS에 의해 발생되어진 다양한 유형의 테러행위사건들을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IS를 중심으로 한 국제테러의 변화양상을 분석하여 보다 효과적인 대테러 정책적 방안 마련에 기여하고자 한다.

2. IS테러에 대한 논의

2.1 IS의 개념과 특징

IS는 이라크, 시리아 일부 지역을 점령하고 있는 이슬람교 수니파 무장테러단체를 뜻한다. 보통 명칭을 줄여서 ISIL(Islamic State of Iraq and the Levant)로 부르거나 IS(Islamic State)라고 부른다. Levant는 아랍어의 알-샤름과 같은 단어로 시리아, 요르단, 레바논 등 지역 전체를 가리키는 단어이다(Oh, S.Y.&Yoon, K.H., 2015: 286).

IS단체에 적대적인 나라들도 이들을 국가가 아닌 테러조직으로 단호히 규정하고 있으며, 2004년 잠마왓 알타위드 알지하드(무자헤딘과 지하드 조직)라는 이름으로 결성한 뒤 여러 번 이름이 변경되었다가 2014년 6월 29일 칼리프가 통치하는 이슬람 국가를 건설한다고 공식 선언하면서 자신들의 공식 명칭을 '이슬람 국가'로 바꾸었다. 특히 2004년 알카에다로부터 충성을 맹세하면서 시작되었고 무자헤딘 슈라 위원회, 알카에다 이슬람 지부, 자시 알파티헨, 준드 알사하바, 카트비안 안사르 알타위드 왈 수나흐, 제흐 알타이파 알만소라 등의 대형 조직을 포함하며 수니파의 지원을 받으며 활동하고 있다.²⁾

IS테러단체의 조직적인 특징을 살펴보면 첫째, 과거 테러조직과는 달리 사람, 돈, 군수품 의 세 가지 조건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풍부한 자금력을 기준으로 조직을 체계적으로 발전시키고 있다. 이러한 경제적인 기반은 이라크 시리아 등의 유전과 도로를 점령하고 기존국가의 관료구조를 활용해 행정체제를 갖추고 있음으로써 조직적인 기능과 더불어 외국 용병들까지 가담시킬 수 있는 가장 부유한 무장집단으로 평가받고 있다(Kang, Y.S., 2014: 24).

둘째, 과거 테러단체 지도자를 중심으로 한 개인 불만세력이나 자국민을 중심으로 한 테러집단을 형성하였다면 IS는 미디어 인터넷 등의 SNS를 통한 세계 각국의 국민을 대상으로 장소를 가리지 않고 조직원을 모집하여 테러집단을 형성하고 있다. 실제로 IS는 최근 그들의 막강한 경제적 지원을 앞세워 알하야트 미디어센터 등을 설립하여 첨단 디지털 기법과 유튜브, 페이스 북과 같은 소셜네트워크(SNS)를 자유자재로 활용하여 7개 언어로 각종 메시지를 실시간으로 전 세계에 전송하고 전투사진을 인스타그램으로 공유하는 것으로 알려 졌다³⁾.

셋째, 다른 테러조직과의 연계를 통한 세력의 확대이다. 창설 초기부터 시리아 동부, 이라크 안바르 및 니느웨주에

1) 이투데이뉴스, “튀니지 박물관 테러 최소 21명 사망, 현재 국가별 IS 가담자 현황은”, 2015년 3월 19일자.

2) <http://www.etoday.co.kr/news/section/newsview.php?idxno=1068148> 참조.

3) 동아닷컴, “초기 칼리프 국가 재건 IS는 어떤 전략을 쓰나..”, 2014년 9월 22일자.

산재된 수니파들과 오랫동안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중동지역 뿐 아니라 보코 하람 등의 아프리카 지역 세력과 연계하면 그 세력을 확장하고 있다(Song, S.K., 2014: 142). 또한 IS는 직접적인 테러행위를 감행하기보다는 연계조직을 이용하거나 테러대상 자국민을 이용한 테러행위를 감행하고 있다.

2.2 IS에 의한 테러발생 유형

IS테러단체에 의한 테러발생 유형을 살펴보면 인질참수형테러, 자살폭탄테러, 무차별적 총격테러, 약탈테러의 유형을 나타내고 있으며,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Oh, S.Y.&Yoon, K.H., 2015: 289-290).

첫 번째, IS테러단체의 선전성과 공포성을 보여주기 위한 인질테러참수형이다. IS테러단체는 서방 국가에 군사적으로 밀리는 경우 '인질 참수'로 상황을 반전시키고 있으며, 자신들의 패배를 선전으로 만회하기 위해 이 같은 행동을 하는데, 참수 동영상 통한 선전 활동으로 대중의 지지를 확보하고 새 대원을 모집하고 있다.4)이와 관련하여, 2014년 8월부터 시작된 인질 참수를 시작해 2015년 2월 1일 일본인 인질 2명의 참수와 2월 4일 요르단 조종사 처형하였다.

두 번째, 소년병을 활용한 자살폭탄테러 유형이다. 유엔 아동·무력분쟁 레일라 제루기 특사는 9월 8일, 유엔 안보리 보고를 통해 이슬람 국가 전사들이 어린이 수 백명을 숨지게 했으며 이들 어린이 일부를 자폭 테러에 이용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슬람 국가가 13세 소년들까지 무기 운반, 경계 근무, 민간인 체포 등에 동원한다며 일부를 자살폭파범으로 이용하기도 했다고 밝혔다.5)

세 번째, IS테러단체는 총기류 및 중화기에 의한 무장공격을 통해 이라크 민간인을 학살을 하는 등 무차별적 총격테러를 행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발생한 일련의 테러사건을 살펴보면, 2014년 10월 31일, IS는 점령지인 안바르주 히트 마을에서 전투를 벌이다 후퇴한 알부-니르 부족원 50명을 일렬로 세워놓고 총으로 살상하였다. 같은 날 라마디 북쪽에서도 알부-니르 부족원으로 보이는 35구가 발견됐고, 앞서 10월 30일에 안바르주 히트 마을과 라마디 북쪽 등 2곳에서 알부-니르 부족의 시신 220여구가 집단매장 된 장소가 발견되었다.6)

네 번째, 트럭 운전사에게 돈을 요구하고 기업에게 폭과 협박을 하는 등 정기적인 약탈테러행위이다. 이 강탈은 수익 원 중 하나로, 은행 및 금 가게를 약탈하여 재원을 얻기도 한다. 2014년 6월 모술 전투 기간 동안, 지역 주지사에 따르면 모술 중앙은행의 4억 2900만 달러를 약탈한 이후 IS가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테러 단체가 되었다고 주장했다. 이 기간 동안 금괴도 대량으로 유출당한 것으로 추정한다. 지역 분석가인 브라운 모세스는 트위터에서 "지하드 전체가 많이 구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예를 들어, 4억 2900만 달러로 ISIS는 1년간 월급 600달러의 조건으로 6만 명의 병력을 고용할 수 있다"라고도 말했다.7)

이러한 테러발생양상을 종합해 보면 IS테러단체는 인명의 살상 납치, 건물과 재산의 파괴, 위협에 의한 공포조성을 하는 폭력, 등을 통하여 무고한 제3자나 민간인을 포함하는 무차별적 공격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한 국가 내부와 외부에 지부를 둘 정도로 조직화된 양상을 띠고 있다.

3. IS테러를 중심으로 한 국제테러의 변화 양상 분석

최근 IS는 다른 테러조직과의 연계와 SNS와 막대한 자금력과 홍보와 선전을 통하여 각국 국민들을 IS조직원으로 포섭하는 등 그 세력을 확장하여 인질참수, 총기난사, 화형, 자살폭탄테러 등의 잔혹하고 끔찍한 만행들을 저지르고 있다. 우리나라도 2004년 김선일씨 피살과, 김 모군의 IS테러 가담, 리비아 주재 한국대사관의 공격, 50여명에 이르는 이슬람 극단주의 조직관련자들이 국내에 잠입을 시도하였다가 추방당한 사건 등 IS에 의한 테러행위와 테러환경이 끊임없이 조성되면서 IS에 의한 국내의 테러 발생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태이다. 또한 IS테러가 더 이상 친미 서방국가만을

4) 정규진. 미 공습 안 먹히는 시리아 IS, 왜 일까?. SBS. 2014년 10월 5일; 조선미. IS '힘에서 밀리면 인질 참수' 전략. 메트로신문. 2014년 10월 5일; 이정진. '패배 뒤 참수' 행동양식 보이는 IS. 연합뉴스. 2014년 10월 5일.

5) "IS, 어린이 수백명 목숨 빼앗아...자폭테러 이용도". 유엔본부 AFP=연합뉴스. 2014년 9월 9일.

6) "Al Qaeda tightens grip on western Iraq in bid for Islamic state". 2013년 12월 11일.

7) <http://edition.cnn.com/2014/06/12/world/meast/who-is-the-isis/>; <http://www.ibtimes.co.uk/mosul-seized-jihadis-loot-429m-citys-central-bank-make-isis-worlds-richest-terror-force-1452190>;

테러대상으로 하지 않고 일본, 케냐 등의 미국과 관계가 없는 국가에서도 테러를 자행한다는 점과 테러 공격자 이외에 민간인과 유적지 등을 모두 포함하여 테러행위 대상으로 공격을 한다는 점에서 그 테러행위의 심각성은 매우 크며 과거와는 현저히 달라졌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원인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 문헌조사와 언론정보를 비롯한 통계자료를 분석하고, 이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사건사례연구를 통하여 최근 IS테러를 중심으로 변하고 있는 국제테러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에 IS에 의해 최근까지 감행하여진 테러행위 중 인질참수형 테러, 총기난사 테러, 자살폭탄테러, 외로운 늑대형 테러의 사건사례를 중심으로 국제테러의 변화를 분석하고 더 나아가 앞으로 우리나라에 발생 할 IS테러 발생 가능성에 대비한 대테러 정책을 모색하는데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3.1 국제테러의 추이분석

<Table. 1>은 테러종합정보센터의 연도별 테러사건 변화추이를 나타낸 것으로 2004년부터 2013년까지 국제테러사건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2013년도 발생한 테러사건은 4,096건으로 2012년도 발생한 테러사건 3,905건과 비교하여 전년 대비 4.8%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⁸⁾

Table 1. Trend of the terror attacks(Terrorism Information Integration Center)⁹⁾

Year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Total
Number	988	1,896	2,886	3,427	3,215	3,370	2,946	3,347	3,905	4,096	30,076

특히, <Table. 2>은 2013년을 기반으로 가장 테러가 많이 발생되어진 국가를 총 10순위까지 분석한 연구결과로 2013년 11,952건의 테러가 발생된 것으로 나뉘었으며 그 중 2852건의 테러사건이 이라크에서 발생되었으며 테러공격으로 인한 사망자 수도 7046명으로 집계되어 대부분의 테러공격과 그로인한 사망자의 수가 이라크에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IS대원이 되기 위해 자국을 버린 외국인이 2만 여명에 이르며 출신국도 90여개에 달한다.

Table 2. The largest number of the terror attacks 2013 years (Kim, E.Y., 2014: 199)

Ranking	Nation	Number of terrorist attack	The number of deaths caused by terrorist attacks
1	Iraq	2852	7046
2	Pakistan	2212	2891
3	Afghanistan	1443	3697
4	India	690	464
5	Philippines	652	432
6	Thailand	477	253
7	Yemen	424	622
8	Nigeria	341	2003
9	Somalia	331	641
10	Egypt	315	243

또한 <Table. 3>에서도 보는 바와 같이 대부분의 테러발생이 탈레반과 IS(이슬람국가)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2001년 탈레반이 비호하고 있던 빈 라덴의 소행으로 추정되는 9·11 테러 사건이 일어났고, 이에 대해 미국이 배후자로 지목된 오사마 빈 라덴의 신병 인도를 거부한 아프가니스탄을 보복 공격함에 따라 탈레반 정권은 붕괴되면서 그 세력이 약해졌고 최근에는 시리아와 이라크를 기반으로 막대한 경제력과 조직력을 가진 IS(이슬람국가)가 테러집단으로 급부상하면서 2013년 이후 가장 많은 테러사건과 테러행위를 통한 사상자를 발생시켰다.

8) <http://www.tiic.go.kr/index.do?method=list>(테러정보종합센터terrorism information integration center)

9) <http://www.tiic.go.kr/index.do?method=list>.

IS(이슬람국가)는 2013년 한 해 동안만 1868명의 테러사건으로 인한 사망자를 발생시키면서 이라크에서 발생한 총 테러사건 사망자의 27%에 달하는 규모의 테러사상자를 냈다(Kim, E.Y., 2014: 200).

Table. 3 Terrorist groups that caused the most casualties 2013 years (Kim, E.Y., 2014: 200)

Ranking	Terror group name	Death toll
1	Taliban	2718
2	Islamic State	1868
3	Boko Haram	1731
4	Al-Shabaab	735
5	Tehrik-i-Taliban Pakistan: TTP	710
6	Al-Nusrah Front	707
7	Lashkar-e-Jhangvi	404
8	Al-Qaida in the Arabian Peninsula	368

따라서 최근 대부분의 테러사건은 이라크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로인한 테러행위의 주체자로 부각되고 있는 테러집단은 IS에 의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또한 IS는 그 세력을 중동지역과 북부아프리카 지역까지 연계하여 확장하면서 여러 테러집단과 다양한 측면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어 앞으로 중동지역 뿐 아니라 다른 지역까지 그 범위를 넓혀 테러 공격을 감행 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IS와 보코 하람이 연계되면서 테러행위는 더욱 잔인하고 위협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3.2 IS테러단체의 테러행위 사례분석

<Table. 4>은 2014년부터 2015년 최근 1년간 IS단체의 테러사건 사례들을 정리한 것으로 표를 중심으로 IS테러단체의 테러행위에 대한 사례를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자생테러를 중심으로 결합한 울프팩 테러가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다. 9·11테러, '이슬람국가(IS)'의 학살 등 국제사회를 경악시켰던 대규모 조직 테러를 시작으로 세계 각국의 자생적 테러리스트인 '외로운 늑대'형 테러가 주를 이루고 있었지만, IS단체에 의한 테러행위의 위세가 지속되면서 테러의 양상도 진화되어 은닉과 기동력을 자유자재로 활용하는 '울프팩(Wolf Pack·늑대무리)' 테러활동이 확대되고 있다. 사회적 불만과 고립감을 가지고 있어 평소 눈에 띄게 되는 외로운 늑대형 테러와는 달리 울프팩 테러 구성원들은 서로가 소규모로 결합되어 있어 평소 사회적 시선이나 의심을 받지 않고 행동할 수 있으며 위장술에도 뛰어난 것으로 알려져 테러행위가 발생되기 전까지 검거하기가 어렵다. 또한 독립적인 외로운 늑대와 조직에 의한 대규모의 전통적 테러의 중간적 성향을 띠면서 소규모 그룹 단위로 움직이기 때문에 기동력이 뛰어나고, 연쇄 총격 및 인질극에 있어서도 장시간의 대치와 언론 노출을 야기해 '공포'를 극대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저비용 고효율을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기존의 테러단체의 장점만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프랑스 샤를리 에브도 총기난사 테러행위도 외로운 늑대형 테러의 결합을 통한 울프팩 테러를 통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둘째, 테러공격 대상의 확대와 잔인하고 무차별적인 테러공격을 통한 심리적공포를 조성하는 성향을 띠고 있다. 과거 테러범들이 주로 국가원수나 국가기관을 공격함으로써 희생자와 비희생자를 구분하려는 선택적 테러를 감행했다면 IS단체를 중심으로 한 오늘날의 국제테러는 테러와 직접관련이 없는 민간인과 고대 문화유산 등도 테러대상으로 포함시켜 테러대상을 구분하지 않고 테러행위를 자행하고 있다. 즉 테러조직과 적대관계에 있는 미국과 유럽의 서방국가뿐만 아니라 그 테러대상을 예멘, 케냐, 캐나다, 호주 등의 제3세계의 나라까지 무차별적으로 공격하고 있으며, 리비아 유전 공격 뒤에 테러가담자와 관계없는 민간경비원을 살해하고 이라크 북부고대도시 크르사바드 유적지 유물을 강탈하며, 모술 박물관의 석상을 파괴하는 등 공격대상과 유형을 가리지 않고 그 잔인함을 드러내고 있는 실정이다.

셋째, 선전과 홍보 전략을 위해 사이버 공간을 활용하고 있다. 사이버 공간에서 인터넷과 SNS의 네트워크를 통하여 수백 개의 홍보물을 유포하고 자신의 주장을 전파하여 전 세계 청소년을 포함하여 지원자를 모집하거나 가입을 유도한 형태의 홍보선전 전략을 취하고 있으며, 시아파 죄수 8명 처형에 소년대원을 동원하여 처형의 잔혹성을 부각시키고 이용하는 인질참수행위, 요르단 조종사 화염행위 등의 테러행위를 영상 촬영하여 인터넷 등에 유포함으로써 언론노출을 통한 심리적인 공포심을 최대화 시키는 전략을 조성하고 있다.

넷째, 다른 테러조직과의 연대를 통한 글로벌 테러조직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 최근 IS는 나이지리아의 보코 하람과의 조직연대를 통하여 그 세력을 아프리카지역까지 넓히게 되었고, 이집트무장단체 시나이 지방도 IS단체에 충성맹서를 하면서 이집트 시나이 반도를 공격하여 민간인 40명을 사망케 하는 등 IS의 세력이 전 세계로 확대 되어 가고 있는 추세이다. 이는 IS가 직접적인 테러행위를 가담하지 않고 단지 경제적인 지원과 지휘만을 하는 간접적 지원으로도 테러행위가 가능하게 되면서 IS의 위협 차단이 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Table. 4 Terror Incident caused by IS in 2014-2015

2014	8/19, 9/2 미국프리랜서 기자 제임스 라이트 롤리, 스티븐 2명 참수살해
	9/13 영국인 구호단체 직원 데이비드 헤인즈 참수살해
	9/24 프랑스인 산악 가이드 에르베 구르텔 참수살해
	10/3 영국인 구호 활동가 엘렌 헤닝 참수살해
	10/22 캐나다 수도 오타와 국회의사당 총기난사
	11/16 미국 자원봉사자 피터 캐식 참수살해
2015	1/7 프랑스 샤를리 에브도 총기난사로 12명 사망, 11명 부상
	1/27 리비아호텔 총기난사로 한국인 1인 포함 9명 사망
	1/29 이집트시나이반도일대 자살폭탄테러 공격으로 민간인 40명 사망
	1/30 파키스탄 시아파사원 자살폭탄 공격으로 61명 사망
	2/1 일본인 프리랜서 기자 고토 겐시 참수살해
	2/3 요르단 조종사 마즈 알카사스베 화형
	2/14 덴마크 코펜하겐 무함 마드풍자 화가 테러
	2/15 이집트 콕트교도 21명 참수살해
	3/18 튀니지 박물관 총기난사로 23명 사망 40명 부상
3/20 예멘 자살폭탄 테러로 137명 사망	

4. 결론 및 제언

최근 IS단체를 중심으로 국제테러가 감행되면서 과거 테러조직과는 다른 양상을 띠고 있다. 특히 IS는 이라크 서부와 시리아 동부, 그리고 리비아 중심부 등을 장악하고 주변의 다른 테러조직과 연대를 하면서 중동과 유럽뿐 아니라 전 세계를 대상으로 테러위협을 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IS테러를 중심으로 한 국제적 테러는 IS와 직접 관련이 있는 국가 뿐 아니라 간접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국가는 물론 우리나라도 테러의 대상에서 예외가 될 수는 없을 것이다. 이러한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 할 때 IS를 중심으로 하는 국제적 테러의 변화 양상을 분석하여 IS테러 위협을 차단 할 수 있는 대응방안의 마련이 필요 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IS를 중심으로 한 국제테러의 변화 양상을 분석하여 최근의 테러 동향과 공격방법들에 대한 이해와 효과적인 대응방안을 마련 할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따라서 기존의 선행연구와 통계자료 및 사례분석을 통하여 IS를 중심으로 한 국제테러의 변화 양상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IS의 직접, 간접적 지원을 받으며 소규모 그룹단위로 활동 할 수 있는 자생테러를 중심으로 결합한 울프팩 테러로의 진화양상을 보이고 있다. 울프팩 테러는 기존의 외로운 늑대형 테러가 진화한 것으로 외로운 늑대형 테러가 혼자서 테러를 감행하거나 평소 사회적 불만을 가지고 있고, 주위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하는 등 사회적 시선을 받고 있었다면 울프팩 테러는 이러한 단점을 보완한 테러형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욱 테러공격을 예상하고 예방하기가 어렵다.

(2) 공격 대상을 IS를 직접 타격하고 있는 유럽과 미국뿐만 아니라 이와 관련이 없거나 간접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국가를 대상으로 민간인, 종교인을 포함하여 유적지, 유물 등에 무차별적이고 잔인한 방법을 동원하여 테러공격을 가하고 있으며 그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3) SNS, 인스타그램 등의 사이버공간을 활용하여 청소년 등을 포함한 지원자를 전 세계적으로 모집하고 있으며, 인질참수와, 화형, 유적지 파괴 등의 테러행위를 촬영하여 인터넷에 유포함으로써 심리적 공포감을 조성하는 동시에 홍보

전략으로 이용하고 있다.

(4) 다른 조직과의 연대관계를 통하여 테러는 물론 무기밀매, 성매매 등의 국제적 범죄를 행하고 있으며, 중동과 아프리카 지역의 테러조직과의 연대관계를 형성하면서 테러지역의 범위를 글로벌화 하고 있는 추세이다.

따라서 위의 IS테러를 중심으로 한 국제테러의 변화 양상을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효과적인 대응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1) 소규모 중심의 자생테러를 바탕으로 테러행위를 하고 있는 IS테러는 테러행위자가 자국 내에서 평소 불만을 가지고 있거나 사회적 적응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다문화가정의 자녀라든가 외국인노동자 등에 의해 얼마든지 IS에 의한 테러행위가 발생할 수 있다는 가정 하에 이들에 대한 사회적 배려와 편견을 버리는 인식개선이 무엇보다 가장 필요하다.

(2) 테러에 대한 동영상을 유포하고, 자아가 약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지원군을 모집하는 등 사이버공간에서의 IS의 테러행위를 예방하고, 대응하기 위해서는 IS테러단체의 사이트에 대한 내국인의 접근을 막기 위한 대테러방지법이 마련되어야 한다.

(3) IS테러를 중심으로 한 국제테러는 더 이상 한 나라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인터폴과 같이 각 나라가 협력하여 정보를 제공하고 테러에 대응하기 위한 전문적인 대테러 협업라인의 구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각 국가에서 발생하는 테러행위와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의 구축과 IS테러에 대한 전반적인 지휘와 통제를 할 수 있는 컨트롤 센터의 구성도 있어야 할 것이다.

이상과 같이 IS테러를 중심으로 한 국제테러의 변화 양상을 분석은 최근의 테러방향에 대한 명확한 이해와 함께 테러행위에 대한 효과적인 방안을 마련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는 단기간 발생되어진 IS테러행위의 통계와 사례의 분석만을 연구하였기 때문에 향후 IS단체의 테러유형과 연대조직과의 와해 등의 변화를 고려하여 장기적인 관찰아래 보다 심층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References

- S.J. Song(2014). "Emerging Threats of ISIS and the US Strategy against ISIS", *Journal of Strategy Research* , Vol.64, pp. 124 - 162.
- S.Y. Oh(2014). "A Study on Occurance Possibility of Suicide Bombing using Utilize Unmanned Aircraft in Korea", *Korea Society of Diaster Information*, Vol.10 No.2, pp. 288 - 293.
- S.Y. Oh & K.H. Yoon(2015). "A study on the risks of terrorism raids in domestic occurring through of the Islamic State of IS terrorist groups", *Korea Security Science Association*, Vol.42, pp. 277 - 308.
- M.W. Yun(2014). "A study on the recent trends of terror ism and types of terror ist attacks in Korea and Overseas", *Institute of Police Science*, Vol.9 No.3, pp. 221 - 249.
- J.M. Seo(2015). "IS and Global terror and Korea", *Politics and policy*, Vol.3, pp. 10 - 13.
- Y.S. Jung(2014). "Improvements of Terrorism Responding System Coping with Changes of Terrorism Aspects Recently", *Journal of Korean Association for Public Security Administration*, Vol.11, No.1, pp. 137 - 160.
- E..Y. Kim.(2013). "An exploration of factors affecting the Crime-Terror Nexus", *Journal of Korea Security Science Administration*, Vol.37, pp. 85 - 108.
- E.Y. Kim.(2014). "Decentralization from Al-Qaida central among Salafi-jihadist groups, Boko Haram and the Islamic States", *Journal of Korea Security Science Administration*, Vol.41, pp. 185 - 212.
- Y.S. Kang.(2014), "A Study on the Threat Reality of IS(Islamic state) Extremism Terrorist Organization", *Journal of Korean Association For Terrorism Studies*, Vol.7 No.4, pp. 7 - 38.
- <http://www.etoday.co.kr/news/section/newsview.php?idxn=1068148>.
- "Al Qaeda tightens grip on western Iraq in bid for Islamic state". 2013.12.11.
- <http://www.tiic.go.kr/index.do?method=list>
- <http://www.ibtimes.co.uk/mosul-seized-jihadis-loot-429m-citys-central-bank-make-isis-worlds-richest-terror-force-1452190>;